

『제주지명사전』의 서설적 논의

오 창 명*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기존 지명사전의 체계
3. 기존 사전의 표기와 발음 문제
4. 기존의 서명(풀이) 정보
5. 마무리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가칭 『제주지명사전』의 서설적 논의를 위해서 쓴 것이다. 지명(地名)은 마을이나 지방, 산천, 지역 따위의 이름을 뜻하고, 지명사전은 지명을 전문적으로 수집 또는 연구하여 수록한 책을 이른다. 지명사전의 경우,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등에서는 地名辭典 또는 地名事典이라고 하고 있다.¹⁾ 地名辭典類는 대개 지명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角川書店(1990), 『角川日本地名大辭典』.

富山房(1988), 『增補 大日本地名辭書』.

申大興(1994), 『最新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地名辭典』, 雄山閣.

연합통신(1989), 『세계지명사전』.

地名事典類는 지명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대개 사전이라 할 때, 어떤 주제이건 언어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事典)'과 '사전(辭典)'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이론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다. 즉 언어의 의의(意義)를 하나의 심상(心象)으로 본다면, 그 심상을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 일은 사전(辭典) 본래의 사명이며, 어의(語義)의 분석이나 용법보다도 사상(事象) 그 자체에 관한 지식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전(事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본래 辭典에서는 언어의 역사와 어의의 변천이 철저하게 추구되는 것이다. 국어에서는 사전(辭典)을 사전(事典)과 구분한다. 사전(事典)의 대표적인 예는 백과사전이다. 독자가 모르거나 자세히 알고자 하는 점을 쉽게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표제어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점이나 각각의 표제어가 폐쇄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공통되나, 사전(辭典)에서는 품사·발음·용례 등 주로 언어 정보가 제공되는 데 비해 사전(事典)에서는 사물이나 사항에 대한 언어외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전(辭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흔히 해당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언어정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전 이용자에게 언어생활의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제주지명사전』은 辭典적인 기능과 事典적인 기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하지만 지명사전은 단순히 국어사전과 대응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띄어야 할 것은 자명하다. 상황에 따라 언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인문·사회화적인 설명과 자연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명 어원에 대한 문제나 지명 유래에 대한 문제는 언어

劉君任(1985), 『中國地名大辭典』, 文海出版社

蟻川明男(1993), 『新版 世界地名語源辭典』, 株式會社 古今書院

陳正祥(1983), 『臺灣地名辭典』

平凡社(1952), 『世界地名事典』

한글학회(1991), 『한국땅이름사전 상·하』

적인 설명이고, 지명 전설이나 지명 설화에 대한 문제는 인문·사회적인 설명이다. 언어적인 설명은 단순한 언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어원을 밝히는 등 상세한 언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인문·사회학적인 설명도 단순한 위치 정보나 지리 정보가 있는가 하면 역사적인 변천 등을 비롯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명 사전이 갖추어야 할 원칙도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위치 정보나 지리 정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세한 내용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객관성과 역사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지명사전이 갖추어야 할 원칙에 대해서는 공통된 것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지명사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지명사전이 갖추어야 할 원칙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지명사전의 체계

사실 제주 지명의 경우 제대로 된 지명 사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도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쩌면 지명사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성숙된 것도 아니고, 지명 자료가 수집된 것도 아니어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쉬운 대로 지명사전의 성격을 띤 것으로는 한글학회(1986)의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Ⅳ·제주편)』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지명사전이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시에 ‘지명총람’이라 했는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주지명과 관련한 책 중에서는 가장 사전다운 형식을 갖춘 것이기에 이 책의 ‘일러두기’를 분석하면 『제주지명사전』의 열개를 짚 수 있다.

이 책의 ‘올림말’ 규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 고급 지명 조사의 결과로, 제주 전역의 지명을 낱낱이 캐어 실었

다.

② 지명은 자연물·인공물·기타로 말미암아 생긴, 지역성·역사성·대중성을 지닌, 땅의 이름을 말한다.

③ 한 군데 이름이 둘 이상 있는 것도 다 올림말로 삼았다.

④ 문헌에만 나오는 지명도 될 수 있는 대로 찾아 실었다.

⑤ 면(동)과 이의 이름이나 출장소의 이름 앞에는 특별한 부호를 붙여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지명총람』은 1991년에 『한국땅이름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발간되었다. 그런데 전자는 도(특별시·직할시), 군·시(구), 읍·면(동), 이, 출장소 등의 행정구역명을 각각 가나다 차례로 벌이되, 행정구역명이 아닌 小地名은 시에서는 동 속에, 읍·면에서는 이 속에서 따로 가나다 차례로 벌였고, 후자는 전자와 달리 『한국지명총람』의 모든 올림말을 가나다 차례로 벌였다.

『한국지명총람』의 올림말 풀이 방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어원, 유래, 변천 과정, 주위 환경, 그 밖에 지명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자세히 풀이하였다.

② 둘 이상의 이름이 있는 지명은 많이 쓰이는 것을 표준 지명으로 정하고, 쓰이는 정도가 비슷할 때는 순수한 우리말로 된 것을 표준으로 삼아, 풀이를 달았다.

이 외에 『한국지명총람』은 책을 읽는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 지도와 사진을 넣었다.

『제주지명사전』의 전체적인 체계는 『한국지명총람』이나 『한국땅이름사전』의 일러두기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명을 벌이는 원칙은 『한국지명총람』을 따르느냐 『한국땅이름큰사전』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지명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기존 사전의 표기와 발음 문제

이 글을 발표하게 된 주된 이유는 기존의 지명사전의 내용 정보(달리 말하면 ‘풀이’)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지명사전으로써의 기능이 약하다는 데 있다.

사전의 지명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의해 표현된다. 그 언어는 당연히 제주방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자사가 그렇듯 제주 지명도 우리나라의 문자와 궤를 같이하는 흔적이 있다. 곧 한자차용표기의 역사를 밟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명사전류에 그런 흔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지명사전류의 지명의 내용 정보(설명 또는 풀이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제주지명사전』의 좌표를 그려 보고자 한다.

제주지명사전은 일차적으로 제주방언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징에서 ‘으’와 ‘우’가 실현되고, ‘외’보다는 ‘웨’로 발음되는 어휘가 많다는 것, ‘에’와 ‘애’가 분명히 구분되어 발음되는데 그것을 적어낼 때는 혼란을 보이고 있다는 것 등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요소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마을인 오등동에 속한 자연마을 중 ‘ㄹ다시’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한국지명총람』(권16:532)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다시 【마을】 → 가라시.

가라시 [가다시, 병다동] 【마을】 오디싱이 남쪽에 있는 마을. 두 성바지가 모이어 마을을 이룩했다 함.

병다-동(竝多洞) 【마을】 → 가라시.

이 마을은 지금도 ‘ㄹ다시’라고 불리는 마을이다. 이것을 적어낼 때 굳이 어두음을 ‘ㄹ’라고 쓰지 못한다면 ‘가’보다도 ‘고’로 써내야 한다. 곧 ‘ㄹ다시’라고 쓰지 못한다면 ‘가다시’보다는 ‘고다시’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 ‘어’가 어두음에서 ‘아’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가다시’로 고쳤다면 그 지역의 현실음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박용후(1960:1988:206)에서 “고다시 [godasi] 竝多洞-梧登洞”, 진성기(1960:40)에서 “병다동(並多洞) 「고다시」”, 석주명(1971:128)에서 “죽성고다시 : 濟州邑梧登里”, 『제주시 옛 지명』(1996:173~175)에서 ‘ㄹ다시’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 위 지명총람은 표제어 중 대표 표제어 선정에도 문제가 많다. 이미 조사된 자료를 보거나 실제 조사를 해보더라도 ‘ㄹ다시’보다 ‘가라시’가 우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미 조사된 자료 어디에서도 ‘가라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의 대표 표제어 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나 집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에’와 ‘애’를 혼동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한국지명총람』(권16)의 다음 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거북-새미 【우물】 조동산 북쪽에 있는 샘. 거북 모양의 돌이 있음.

새미 【마을】 → 회천동.

새미-송물 【우물】 새미 서쪽에 있는 우물. 물이 땅 속으로 흐르다가 솟아 나므로 숨어 있는 것 같음.

‘샘’[泉]의 제주방언은 ‘새미’가 아닌 ‘세미’로 표기하고 있다. 석주명(1947:57), 박용후(1960:207, 222), 현평효(1962:4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52) 등에서 모두 ‘세미’로 적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와 같은 책에서 ‘새미’와 ‘세미’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새미’로 쓴 경우도 흔하다.

제주방언의 ‘외’는 이중모음 ‘웨’로 소리나서 단모음으로 발음되지 않는데도, ‘외’와 ‘웨’를 혼동하여 적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명총람』(권16:411~415)의 다음의 경우가 그런 예들이다.

- 괘-구슬** 【들】 자근이며새 북쪽에 있는 들. 괘(고양이) 코처럼 생겼음.
괘-동산 【등】 상동 위에 있는 등성이. 괘(땅굴)가 있음.
괘-리 【마을】 → 한동리.
웃-괴 (웃괘, 상동) 【마을】 괴이 위쪽에 있는 마을.

‘고양이’를 뜻하는 제주방언과 ‘바위굴’을 뜻하는 제주방언은 모두 ‘괘’다. 석주명(1947:21)에서 ‘괘:굴’, 박용후(1960:1980:12)에서 ‘괘:바위굴’, 현평효(1962)에서 ‘고양이:괘’, ‘괘:위로 큰 바위가 가리워지고 땅이 가로 깊숙하게 패이어 들어가게 된 곳’,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108)에서 ‘고양이:괘’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실 위 지명총람과 같이 제주방언을 제대로 적어내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지명사전류에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우리말을 사전에 표제어로 올릴 때, 한글 자체가 발음 부호 역할을 하는 글자여서 굳이 발음 부호를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발음 부호를 달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차차 표기를 반영한 한자 표기인 경우는 발음 부호에 상응하는 독음 부호를 달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명 사전의 경우 이것을 등한히 해왔다.

『한국지명총람』(권16:448)의 다음의 경우가 그런 예들이다.

- 고평** (古坪) 【마을】 → 핏드르.
고평-동 (古坪洞) 【마을】 → 핏드르.
괴질-평 (怪叱坪) 【마을】 → 핏드르.
핏-드르 (고평, 고평동, 괴질평) 【마을】 웃논홀 동남쪽에 있는 마을.

위의 ‘핏드르’는 당연히 ‘켓드르’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고, ‘켓드르’의 한자 차용 표기를 怪叱坪과 古坪 등으로 쓰기 때문에, 怪叱坪은 ‘괴질평’이 아닌 ‘켓드르’로, 古坪은 ‘고평’이 아닌 ‘켓드르’로 읽어야 하고, 당연히 독음 부호도 이렇게 달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명사전의 현실이자 제주지명사전의 현실이다.

다음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增補 大日本地名辭書』

(富山房, 1988: 권1. 2)의 平安京 항목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p>ヘイアンキョウ 平 安 京 : 京都의 古名으로써, 延曆 遷京 初에 詔勅이 있어서 タヒラノミヤコ 이 이름을 붙이고, 본훈 タヒラ(다이라)는 나중에 ヘイアン(헤이안)으로 불렸다.</p>

위의 平安京 위쪽의 ‘ヘイアンキョウ’(헤이안쿄)는 平安京을 소리나는 대로 읽은(音讀) 것이고, 아래쪽의 ‘타히라노미야코’(다이라노미야코)는 平安京을 뜻을 살려 읽은(訓讀) 것이다. 平安은 예로부터 ‘타히라’(다이라)라고 불렀고, 나중에 그것을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것이 平安(다이라)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平安을 혼독하지 않고 음독하게 된 것이 ‘헤이안’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지명사전의 경우도 한자 차용 표기는 당연히 이러한 것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4 기존의 설명(풀이) 정보

기존 지명 사전류의 가장 큰 문제는 설명 정보가 지명 전설 위주로 되어 있어 지명의 어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명 전설이 민간어원으로써 선인들의 언어관을 알고 지명의 명명법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그것을 지명의 어원과 연결시킬 때는 신중해야 한다. 지명의 어원은 오늘날 불확실한 추론이 많지만, 신지명에서 구지명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하여 변천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언어사나 지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 지명사전류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등한히 처리하고 있다.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상동에 있는 ‘갯거리오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보자. 우선 기존의 설명을 살펴보자.(여기에 든 4종 이외의 책 대부분도 이와 같은 내용이다.)

구미악(狗尾岳) 「개꼬리오름」 : 산 모양이 두 마리의 개가 눈 꼬리와 같다는 데서 「개꼬리오름」이라 불리워지든 것이 후에 한자 표기에 의해서 「구미악」이라 호칭함.(진성기, 1960:162)

개꼬리오름 : ...산형이 두 마리 개가 꼬리를 끌고 누운 형상...(1963년의 「한림읍지」)

개구리-오름 【산】 →갯거리오름.

개꼬리-오름 【산】 →갯거리오름.

갯-거리 【산】 →갯거리오름.

갯거리-오름 (갯거리, 개꼬리오름, 개구리오름, 구미악, 갯걸오름) 【산】 한림읍 명월리, 금악리, 동명리 경계에 있는 산.

갯걸-오름 【산】 →갯거리오름.

구미-악(狗尾岳) 【산】 →갯거리오름.(한글학회, 1986:405)

갯거리-오름 ㉮ 狗尾岳. 두 마리의 개가 엉덩이를 맞대고 훌레하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오성찬, 1992:135)

이러한 내용에 반론을 편 사람도 있다.

산형이 개의 꼬리를 닮았다는 얘기는 도저히 수궁이 안 간다. ...狗尾(구미)의 狗(구)자에서는 음 ‘구’를 취하고, 尾(미)자에서는 ‘꼬리 미’의 음 ‘미’에서 초성 ‘ㄹ’만을 취해서 ‘굴’ 어형을 형성시키고 ‘狗尾’(구미)로 표기해 놓은 것으로 본다. 이 ‘굴’은 ‘곰’과 통한다.(현평효, 1990:35)

갯거리오름 : ...오름 호칭이 사람 따라 어슷비슷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갯거리오름·개꼬리오름에 개구리오름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갯걸오름·갯골오름·갯굴오름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문헌이나 묘비에는 皮文岳(피문악) 또는 狗尾岳(구미악)으로 표기돼 있고 한글로

갯거리라고 적힌 묘비도 있다. 옛 지도에는 皮文岳(피문악)으로 나오고… 개꼬리오름(狗尾岳)은 그 이후에 생긴 이름인 듯하며…개구리오름은 위의 ‘갯거리’나 ‘개꼬리’의 와전인 듯하다. 개구리에 대한 한자 표기도 없을뿐더러 제주말로는 개구리를 ‘개비’ 또는 ‘가개비’라고 하기 때문이다. 국립지리원 지도에는 개구리오름이라고 표기돼 있다. …그런가 하면 갯골오름이 본디 이름일 것이고 이외의 모든 속칭은 이에서 변화 내지 와전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에 따르면 옛날 이 오름 기슭에 ‘갯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갯’은 ‘밀립갯, 나무갯’ 등 山(산)을 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갯골’은 산기슭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이다.(김종철, 1995:3권, 363)

위 두 내용은 앞의 네 내용에 대한 반론을 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어원 설명은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 그래서 오창명(1998:72)에서 좀더 보충하였다. 옛 지도와 문헌, 그리고 마을 주변의 비석에 皮文岳으로 표기되었고, 민간에서는 주로 ‘갯거리오름’²⁾이라 하는 것을 볼 때 皮文岳은 ‘갯그리오름’ 정도의 음성형을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것이고, ‘갯거리오름’ 등은 이의 변형으로 보인다. ‘갯거리오름’은 김종철의 설명대로 “이 오름은 현실적으로 몸은 하나인데, 상·하반신 형태로 형성돼 있으며, 구불구불 긴 등성마루 양단에 각각 반대 방향으로 벌어진 복합형 화구를 가졌다.”(1995:3권,363)는 설명에도 부합되고, 제주방언 ‘거골로, 가골로’ 등과도 음성형이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다.

5. 마무리

이 글은 필자가 기획하여 쓰고 있는 『제주지명사전』을 위한 서설적 논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2) 1912년 일본인이 조사하여 기록한 『조선지리지자료』에는 客巷山으로 표기하였고, 1910년대 후반에 일본이 만든 25,000분의 1지도에는 狗尾岳 ケーゴリオルロ'이라고 표기하였다.

전체적인 체계는 『한국지명총람』이나 『한국땅이름사전』의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명 풀이나 지명 설명 부분은 매우 조심해야 함을 몇 예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제주지명사전』에서는 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

기본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항목명(지명) :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와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구분.
- ② 항목명의 발음 또는 읽는 방법 : 발음을 표시할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음독해야 하는 경우와 차자 표기된 것을 재구하는 경우 등을 구분.
- ③ 항목명의 종류
- ④ 위치 정보 : 항목명의 소재지(지리적인 정보)
- ⑤ 내용 정보 : 항목명의 어원과 유래, 연혁, 전설, 현황 등의 인문·사회적인 정보 + 지도와 사진, 일러스트, 표 등 덧붙임.

앞으로 만들어질 『제주지명사전』의 구조읍 한동리와 관련된 지명 설명을 예로 들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槐里(괴리×)[쾌마슬] 【마을】 한동리의 옛 이름인 '쾌마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 한동리.

怪里(괴리×)[쾌마슬] 【마을】 한동리의 옛 이름인 '쾌마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 한동리.

怪伊(괴이×)[쾌] 【마을】 한동리의 옛 이름인 '쾌'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 한동리.

怪伊里(괴이리×)[쾌마슬] 【마을】 한동리의 옛 이름인 '쾌마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 한동리.

槐伊里(괴이리×)[쾌마슬] 【마을】 한동리의 옛 이름인 '쾌마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 한동리.

쾌 【마을】 → 한동리.

猶有(묘유×)[쾌] 【마을】 한동리의 옛 이름인 '쾌'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 한동리.

猶伊(묘이×)[쾌] 【마을】 한동리의 옛 이름인 '쾌'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 한동리.

獠村(표촌×)[쾌ㅁ슬] 【마을】 한동리의 옛 이름인 '쾌ㅁ슬'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 한동리.

한동리(漢東里) 【마을】 북제주군 구좌읍의 한 마을이다. 서북쪽에 행원리, 서남쪽에 송당리, 남동쪽에 세화리가 있다.³⁾

〈어원 및 유래〉 한동리의 원래 이름은 '쾌' 또는 '쾌ㅁ슬'인데, '쾌'는 '바위굴'을 뜻하는 제주방언이고, 'ㅁ슬'은 '마을' [里]의 제주방언이다. 고유어 '쾌'는 한자 차용 표기에 따라 猫有[쾌](『탐라지』), 怪伊[쾌](『탐라순력도』), 猫伊[쾌](『남환박물』), 猫[쾌](『탐라지도』), 槐[쾌](『제주삼읍전도』), 槐伊[쾌](『제주군읍지』) 등으로 표기되다가, 한라산 동쪽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인 漢東里(한동리)로 고쳐 부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연혁〉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 怪伊[쾌],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猫村[쾌ㅁ슬], 『탐라방영총람』에 怪伊里[쾌ㅁ슬], 『제주읍지』(제주읍지, 방리, 좌면)에 怪里[쾌ㅁ슬], 「제주삼읍전도」와 『제주계록』 등에 槐里[쾌ㅁ슬], 『제주군읍지』(「제주지도」)에 上槐伊[우쾌], 槐伊里[쾌ㅁ슬], 『삼군호구가간총책』(제주군, 구좌면)에 漢東(한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중반까지 제주목 좌면에 속하고, 19세기 중후반부터 제주목 구좌면, 제주군 구좌면에 속했다. 1946년 8월 1일부터 북제주군 구좌면에 속하고, 1980년 12월부터 북제주군 구좌읍에 속해 있다. 결국 한동리는 예로부터 '쾌'라 불렸고, 마을이 형성되면서 '쾌ㅁ슬' 쾌ㅁ슬'이라 했다. '쾌ㅁ슬'을 한자 차용 표기로 쓴 것이 怪伊·猫村·怪伊里·怪里·槐里·槐伊里 등이다. 20세기 초반부터 漢東里(한동리)로 고쳐 부르고 쓰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⁴⁾

漢東里(한동리) 【마을】 → 한동리.

- 3) 위치 정보에 다음과 같은 지리·사회문화적인 정보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간략 정보를 지향하느냐 상세 정보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31.3km 거리에 위치한 해안 마을이다. 구좌읍 관내에서는 송당리(36.27km), 덕천리(20.71km) 다음 세 번째로 큰 면적을 가졌다. 동쪽은 평대리 서동, 서쪽은 행원리 동동, 남쪽은 덕천리, 송당리와 접하고 있다. 2001년 12월 현재 가구수는 489가구, 인구는 남자 759명, 여자 816명(총 1575명), 면적은 1,581ha, 밭이 487ha, 과수원이 22ha, 임야가 869ha, 기타 203ha이다.

- 4) 내용 정보에 〈어원 및 유래〉, 〈연혁〉 외에 민간어원적인 지명 유래 및 전설, 자연 환경과 산업구조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사진 집필자가 간략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상세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종철(1995), 『오름나그네 1·2·3』, 도서출판 높은오름.
- 박용후(1960, 1988), 『濟州方言研究(資料篇)』,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편집국.
- 석주명(1971), 『제주도자료집』, 제주도총서⑥, 보진재.
- 오성찬(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 오창명(1998ㄱ),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1988ㄴ), “국어학적 측면에서 본 지명:제주도지명 연구의 방향과 과제”, 『제주도지명 어떻게 볼 것인가』(제주학연구소 제1회 학술세미나 자료)
- 오창명(1999), “제주도지명 표기와 해독, 설명의 문제점”, 『지명학』 2집, 한국지명학회.
- 제주시·제주문화원(1996), 『제주시 옛 지명』
- 진성기(1960), 『제주도지명의 유래』, 제주도관광안내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IX(제주도편)』.
- 한글학회(1986), 『한국지명총람 16(전남편Ⅳ·제주편)』
- 현평효(1990), “지명을 통해 본 탐라언어의 원류”, 『제주문화』 4호, 방 송대 제주학생회.